

통큰 깜빡기부에 여의도 발칵

■ 안철수 재산환원과 정치권 반응

“대선첫발 땀” 대권후보들 초긴장 여권분열·야권통합 촉매제 예측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재산 환원이 정치권의 최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15일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정치권의 해석은 다양하다. 전망도 풍성하게 나오고 있다.

▷ 대선 후보 선호도? = ‘순수한 기부’라는 안 원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안 원장이 당장 현실 정치권에 뛰어 들지는 않더라도 대선 장기 레이스의 첫발을 땀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웅 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이제는 대권 출마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적다”고 말했다.

안 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내년 총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요동치게 할 것이 확실시된다.

우선 ‘안철수 신당’ 창당 여부가 관심사다.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될 경우 이는 ‘박세일 신당’, ‘박근혜 신당론’, ‘진이 분당론’ 등으로 어수선했던 범여권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권에선 대세를 위협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물론 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선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범여권은 안 원장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간의 보이지 않는 불밀 대선후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야권통합 촉매제 되나 = 안철수 신당설은 야권통합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안철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대권후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권통합에 더욱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진행되는 야권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도 안철수 현상 속에 묻히며 통합 대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 빌게이츠나, 로스페로나 = 안 원장의 재산 환원은 미국의 갑부인 빌 게이츠나 로스페로나를 연상시킨다.

세계 최고 갑부에서 세계 최대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빌 게이츠는 지난 1994년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워 지금까지 300억 달러(약 33조원)를 기부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2006년 “440억 달러 전 재산 중 99%를 기부하고, 그중 85%는 게이츠 재단에 전달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겨왔다. 안 원장도 이들과 같은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페로의 예상 같은 등장은 하루아침에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지지율이 한때 39%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으로 출근한 안철수 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경받은 인사로 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의 ‘안철수’는 정치에 몰두하지 않은 참신한 인사였지만 대통령선거에 뛰어 들면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국민 시선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100대 부자였던 로스페로나는 지난 1992년 2월 성공적인 기업가의 이미지와 능력을 앞세워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 페로의 예상 같은 등장은 하루아침에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지지율이 한때 39%

를 넘었다. 당시 부시는 31%, 클린턴은 25%였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지지율은 25%로 떨어지고 결국 낙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원장의 정치에 입문할 경우 로스페로나와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예측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결국 안 원장 향후 행보 내용이 그의 미래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FTA절충안’ 지지 민주 지역의원들 잇단 수난

김성곤·김동철 의원 사무실 항의 전화·규탄 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온건파 일부 지역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농어민단체 등에 잇달아 수난을 당하고 있다.

여야 합의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성곤(여수 갑) 의원은 누리 쿤과 여수지역민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과 국회의원실이 항의 전화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1일과 14일에는 여수 농어민단체와 진보단체와 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 등은 김 의원의 여수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촛불 규탄 집회를 하는 등 김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도 15

일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 광주사무실을 방문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장 의원에 대해 한미 FTA 입장과 견해와 여야 절충안에 대한 서명 유무를 질의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한미 FTA 절충안에 대해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여야 간 대화를 논의해 보자는 동료의원들의 연락을 받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에 단순히 참석한 사실은 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14일 민주당 김동철(광산 갑) 의원에게 광주 사무실 앞에서 야적사위와 함께 김 의원 규탄 집회를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부에서 한미 FTA 야합 주도자로 규정하며 마치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처럼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유감

을 표하고, 이익균형이 무너진 한미 FTA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에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하기 위한 여야 온건파 6인 협의체가 15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한나라당 홍정욱·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 여야 각 3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곤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에 동참한 의원들을 마치 FTA에 찬성한 것처럼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 물리력을 써서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처리하면 ISD 조항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근거가 사라지는데, 이번 절충안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치는 생물, 야권대통합 안된다고 생각안해”

민노당 김선동 의원



민노당 김선동 의원(순천)은 15일 “정치는 생물이니, 야권대통합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안철수 현상”은 ‘반(反)한나라당, 비(非)민주당’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 혁신의 모습을 보이면 대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과의 대통합은 불가하다”는 민노당의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그는 ‘내년 총선 야권 연대시 또다시 민주당에 순천 양보를 주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되면 원내대표할 가능성이 큰데 후보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도 “하지만, 나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면 내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참여당은 왜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참여당은 진성당원

위주로 구성된 당의 정책과 노선을 소수 지도자가 아닌 당원들에 의해 한다. 열린 정당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며 “또 당원의 절대다수가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다.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고 답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 그는 “자유무역주의보다는 자유무역이 통상국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FTA는 미국과 하는 것이어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히 한미 FTA에서 ISD조항은 최악이다. 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원샷통합전대’ 절차·방식 문제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지역위원장들 연석회의서 지도부 비판

민주당이 14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야권 통합을 위한 ‘원샷 통합 전담대회’와 관련, 절차와 방식을 문제 삼으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한 번의 의원총회, 당무회의, 전국위원장회의 없이 통합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이미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통합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되고 당론이 원샷 통합방식으로 모아진다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진정국면이 아니다. 당원들이 (현재의 통합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통합수입기구를 구성한 뒤 통합절차를 진행하는 게 옳다”며 “야권대통합 추진기구가 ‘혁신과통합’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선호 의원은 “그동안 어떤 야권 통합 논의과정도 없이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며 현 지도부의 단독 진행을 문제삼은

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 ‘단독전대=반통합’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최근 지도부에서 민주당 당명 변경을 통한 제3자대신 당창당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원샷전대는 법적으로 쉽지 않고 당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며 “야권대통합 추진기구가 혁신과 통합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한 뒤 민주당에 들어오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야권통합 단독전대 촉구 광주·전남 광역의원·당원들

광주·전남 민주당 일부 광역의원들과 당원들이 현 지도부의 야권대통합 방식에 반발하고, 단독 전담대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46명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대통합은 국민적 공감과 당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며, 원칙에 따라 민주당 전담대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민주당 당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의 화합을 외면한 채 다른 정당과의 통합만을 외치는 민주당 지도부는 ‘꼼수정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원보좌인력 도입·의정비 현실화를”

도의회,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정책토론회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보좌인력 도입, 의정비 현실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주민에 대한 대응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에게도 개별보좌관 인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순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전남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6위이고 일부 기초의회

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기병 전 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이계만 조선대 교수 등이 참석,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모순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벌이고 관련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치 - 치료치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5-중-9092호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 (병의 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불면증 / 학습장애
- 지역회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선착순 5명모집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금서비스 · 개인신용정보의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항)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웅 (대표 제 042호)
대표 1544-9430 |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항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복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시금용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한도: KBA세-80%+a (60%)
금리: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제 042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 980평
-매매금액: 45억원
-용자금액: 20억원포함
한의원/치과전문병원등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수원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국민은행 2차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 2차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1961-3377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기회부터 책임마감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전남대 정문 2분)

- ★1억에 5채
- ★1년간 임대수익보장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양도세 혜택
- ★항시 건축토지구합

(주)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선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방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3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윤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집(도시가스, 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능)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물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 앞 101평
계화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